빗속 환희의 율동…세계평화 기원하다

연등회의 시작 '어울림마당'
동국대서 연희단 공연 비롯
종단 지도자들과 연등법회
12일엔 전통문화마당 열려


5월 11일 연등행렬에 앞서 봉행된 어울림마당에서 청소년연희단이 봉축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윤호섭 · 이민우 기자

임은호 · 김내영 기자

5월 11일 연등회의 시작은 동국대 운동장에서 봉축연희단의 축하무대를 중심으로 한 어울림마당으로 시작됐다.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연희단은 밝은 얼굴과 신명나는 율동으로 화합과 배려, 평등, 세대전승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40여 단체의 어린이·청소년·청년 율동단과 등단별 연희단 1000여 명은 음악에 맞춘 활기찬 율동으로 축제의 장을 펼쳐내고, 참석대중은 연희단의 신명나는 무대에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이어 봉행된 연등법회는 연등행렬의 의미를 알리고 온 인류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하는 법석이었다. 법회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지도자들과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 등 주요 사찰, 포교사단·국제포교사회 등 사부대중 5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각 종단 대표와 각계 대표들은 단상에 마련된 아기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을 진행하며 부처님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온 인류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했다.

봉축위원장 진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우리가 밝히는 등은 마음의 평화를 통해 내 삶의 주인공으로 바로 서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서원"이라며 "어둠이 짙은 곳에 등을 밝혀 그림자를 걷어내고 밝은 빛은 함께 누려 행복을 나누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에 자비의 손길로 함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붓다차리타〉 경전봉독으로 부처님 오신 뜻을 전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발원문에서 정토세상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도진정사는 "구름 걷힌 해처럼 있는 그대로가 평안함이요, 본래 부처임을 확신하겠다"며 "사람이 곧 부처요, 이 몸이 곧 부처임을 아는 반야의 지혜를 열겠다"고 밝혔다.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기원문에서 "나와 남이 함께 상생하며 이익되는 세상,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일구는 세상, 자신을 성찰하고 이웃에게 전법해 마음의 평화와 행복한 세상이 될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서원했다.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평화 기원 메시지'도 발표됐다. 법회 참석 대중은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이 낭독한 메시지에서 "오늘 우리가 밝히는 등은 그늘진 곳을 밝히는 광명의 등이며 상생과 공존을 실현하는 평화의 등이 될 것"이라고 기원했다.

한편 5월 12일에는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전통문화마당과 연등놀이가 열렸다. 전통문화마당에는 80여 개 단체가 참여해 내·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불교문화체험을 체험할 수 있게 안내했다. 또 연등행렬의 아쉬움을 달래는 연등놀이에는 상월비보이와 각 사찰 율동단, 뉴진 스님(개그맨 윤성호)의 EDM 난장 등이 펼쳐져 청년세대의 관심을 끌었다.

동국대 全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

미융대 '퓨처핸접' 창립법회로
14개 단과대 동아리 창립 완료



동국대 서울캠퍼스 모든 단과대학에 불교동아리가 창립됐다.〈사진〉

동국대 미래융합대학은 5월 11일 정각원에서 불교동아리 '퓨처핸접'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창립법회에서 미래융합대학 불교동아리 회원 학생들은 청년불자로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할 것을 서원했다. 창립법회에서는 불교동아리를 지도할 지도법사와 지도교수 위촉식도 진행됐다. 지도법사에는 진관 스님(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지도교수에는 동국대 글로벌무역학과 이도형 교수, 융합보안학과 박상진 교수, 사회복지상담학과 이해님 교수, 글로벌무역학과 남은영 교수가 위촉됐다.

미래융합대학 '퓨처핸접'을 끝으로 지난 3월 20일 사회과학대학 불교동아리 '템플애플' 창립부터 시작된 동국대 14개 모든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은 최종 완료됐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지난 3월 사회과학대학 불교동아리 창립을 시작으로 집을 한 채씩 지어 오늘 드디어 14번째 마지막 집을 짓게 되었다"며 "지금까지 모든 단과대학에 불교동아리가 창립될 수 있도록 고생해주신 총장님 이하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재웅 총장은 "동국대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3월부터 불교동아리가 창립됐는데 오늘 14번째 동아리가 창립됨으로써 회향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마지막이면서 새 출발을 하는 날이기도 하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월 16일 출범한 'WISE 대학생전법단'을 출범시킨 동국대 WISE캠퍼스도 단과대학별 불교동아리, 불교학생회, 불교도연합회(불교계 장학생, 불교추천전형, 유학생 불자 등) 등 연합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한마음선원 불바퀴燈, 세상을 비추다

안양본원 5월 5일 봉축점등
장엄 · 행렬등 · 연희 선봬
우천에도 2천여 대중 집결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은 5월 5일 한마음선원 불교문화회관에서 봉축장엄등 점등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청년연희단이 공연하는 모습.

매년 연등회에서 선보이는 장엄등 중 단연 백미는 한마음선원이 제작한 장엄등이다. 올해 한마음선원의 장엄등은 대행 선사가 설한 우주의 섭리와 진리를 나타내는 '불바퀴등(燈)'으로, 연등회에 앞서 대중에게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5월 5일 안양본원 불교문화회관에서 봉축장엄등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등식은 궂은 날씨에도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조계종 총무국장 향림 스님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점등식은 한마음선원에 장엄등과 행렬등, 선원 연희단의 공연을 선보이는 자리로 꾸며졌다. 올해 한마음선원은 장엄등으로 불바퀴등과 사탕수레등 2기를 선보인다.

불바퀴등 중앙에 자리한 한마음의 불바퀴는 불바퀴, 법바퀴, 물바퀴가 같이 꿰어 돌아가는 우주의 섭리와 진리를 나타내면서 만물만생이 광대무변하고 불생불멸하는 우주의 근본과 연결돼 돌아감을 표현했다. 좌우 청룡과 황룡은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게 돌아감을 의미하며, 앞에 자리한 손오공은 부처님의 근본에너지가 수없는 화신으로 나투어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음을 상징한다.

법회별 행렬등도 소개됐다. 어린이법회는 '봄나들이', 선법합창단은 '향공양등', 학생회는 '허수아비와 참새', 신도회는 '황금나무', 청년연희단은 '봄이 오는 소식' 행렬등을 선보였다. 이들 장엄등과 행렬등은 이사장 혜수 스님과 주지 혜솔 스님의 점등으로 불을 밝히며, 도량과 세상을 비추었다.

이와 함께 각 법회들은 행렬등과 함께 연등회에서 선보일 군무를 대중에게 첫 선을 보였으며, 학생회는 점등식만을 위한 난타 공연을 펼쳐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마음선원의 장엄등과 연희를 확인한 향림 스님(염불사 주지)은 "무려 5개월을 준비했다고 들었다. 이사장 스님과 주지스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신도들의 신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연등회 발전을 위해 변치 않는 정진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우리 청년들은 장엄등 불사가 수행의 길이자 정진의 길임을 그대로 보여줬다. 청년들이 보여준 5~6개월의 과정은 마치 하나의 법당을 만드는 불사였다"고 격려했다. 안양=신중일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奉恩寺 |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www.bongeunsa.org
TEL 02)3218-4800 / FAX 02)544-2141